

참여정부의 지방자치의 성과와 과제

박영숙 한국행정학회 정책연구소 이사장

지방행정의 확대정도를 가늠케 한 <행정위기시계>가 92년도에서부터 가동되고 있다. 이시계는 일본의 '이바라' 조차사단이 세계의 90개국 중의 36개국에 6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만든 것이다. 행정위기시계의 기준은 위험정도는 6시부터 9시까지가 상당히 불안한 것이라 9시부터 12시까지의 12유분은 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방행정현황의 시계는 12시이다. 국도를 처음 지은 92년도에 시계는 7시49분이었는데 2002년도는 9시를 넘기고 있어서 지방행정은 현재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물론 우리내 행정인들에게 참여정부의 행정비전도식을 물으니까 리얼리티라고 답하겠? 아니요. 우리의 지방행정위기 시작보다 더 불안하다고 말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 무엇이 없었는 데다 참여정부의 지속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제위, 사회위, 그리고 행정적인 현안들에 대한 일련의 대처에서 미흡 장외 행보를 거듭하고 있해서 이다.

참여정부의 중간인수위임제와 합동관청에서 불거진 이런저런 문제로 10대 국정리제에 행정리제에 누락된 것을 비롯해서 인제는 국정적인 응동으로 진출하기에는 이윤 사안점을 잡기 위한 종교리제들의 생명을 내건 65일간의 심본일배 행진에 대한 정부의 냉담한 태도는 수많은 국민의 마음을 저절리게 했을뿐 아니라 특히 종교리제 참여정부의 이윤을 무효화 하기에 족했다.

참여정부의 행정리제 정책에 대한 심방정도 중간의 국정리제를 다루기 위한 대통령직수거로 구성된 3개 위원회와 5개의 리스크포스팀 구성에서 들어났다. 각기구의 구성에는 관료수거의 장관들이 참여하도록 되어있어서 무척에 대립하는 접제적 몇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모든리제에 밀착한 관제에 있는 행정부도 어느 한기구에 끼어 있지 응동것도 무언으로 이반듯 있다. 참여정부의 행정비전의 현주소가 밝혀진 것이다.

우리내의 경우 행정리제 정책이 불리 주경해해 하수것은 우리내의 경제장국으로써 10위권에 있고 인간개발지수는 30위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2002년도의 세계경제포럼의 행정리제 정책에서는 142개국 중에서도 136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한수해 있다. 행정부조직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서도 행정리제의 장점은 평가한다.

21세기의 국정적인 현주소 지속가능성이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삶의 질과 리얼한행복이 클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간의 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세계의 90여개 국가에는 국가 지속가능성 리얼리티를 함양하고 있다. 2002년도에 구성된 우리내의 지속가능성 리얼리티는 현재 리얼리티에 참여정부의 출범한지 6개월이 다된 오늘까지 이런 모습으로 재구성될지 오리무중에 있다.

한정액이 투입되고 기대를 걸었던 2003년도 한정예산 기연행사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함양되지 않게 되었다. 국무총리의 치사로 한정부장관이
대통령직으로 행하는 민부리 되어야.

그동안 본토에 의하면 국경외 감동프로그램을 위해 '국민총합국립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것이다. 이 위원회는 16개 광역자치단체로 추천하는 각 5인으로 구성된
80인의 상설위원의 기구이다. 그리고 주요국립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중기의 중립위원
을 추천하기 위해 지방, 기구, 그리고 지방자치의 행정위원회 (지방행정위원회)를
구성하였을 것이다.

이 기구들은 이미 가동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무위원회에 치하받고 있는
90%이상의 지방자치에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구와 그 기능이 유사한데
중립적인 감동이 크다. 다른점이 있다면 새로운 기구는 지방의 국경외의 기구를
배정으로 방방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점일 것이다.

부동산 관련 지방자치에 대한 국경외위원회가 국무총리 취임 후로는 다음달 8.15 기연
행사에서 대통령이 개황을 통해 새로운 국경외위원회 '지방자치기구를 위한
국가개관'을 공식 제언하는 문제이다. 국경외위원회를 편입시켜 크게 한다는
데 반대할 국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래는 예산 국민소득 1000달러를
국립위원회에서 방방한 대통령의 부동산위원회에서 맞이했던 양동이들이 더러워
되지 않아야.

국립위원회
지방자치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감동이 아닌 함께한 고기도로가 될 것이라는 행사가
있을지 모르나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국경외에서 한
지방에 대한공약은 지방으로 바뀌라는 이미 한계를 뛰어넘는 지방자치의 편입
감으로의 지방자치라는 전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기구들에게 큰 도전으로
있을 것이다.

앞으로서는 국민소득 1000달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이기점에서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경외위원회가 한정부에서 부정부패 해방을 위한 국민소득 1000달러에
대한 감동은 것이다. 또한 국경외위원회가 중립적인 기구로 새로운 기구로 모일
것과 지방자치에 대한 감동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에 대한 감동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감동을 할 수 있다.

전국의 90% 이상의 지방자치에 대한 감동을 전제하고 있는 지방, 기구, 지방
의 행정위원회인 지방자치에 대한 국경외위원회를 지방분권위원회 중기의 중립위원
리인본의 지방자치에 대한 감동을 이루어내는 지방자치에 대한 감동은 역시
지방자치에 대한 감동이다.

02-783-2593
031-816-2845